

漢代 經學 발전이 寓言의 論說 방식에 미친 영향

權娥麟*

◁ 목 차 ▷

- I. 들어가는 말
- II. 西漢 經學 흥성과 '依經立論' 풍조
- III. 寓言 論說 방식의 변화
- IV. 經書 인용 우언의 문학적 의의
- V. 나오는 말

I. 들어가는 말

통일 왕국이 세워지고 대내외적인 안정이 장기화되자 새로운 사상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漢 초기에 秦 멸망의 역사적 경험을 교훈 삼아 정치적 안정을 위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이론과 실재를 아우르며 현실 정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장들이 쏟아져 나온 것도 그러한 시대적 요구의 표현이다. 여러 실험적 저작이 나온 후 儒家에 기반을 둔 현실적인 사상 체계가 정비되었는데, 황제에게 천명을 부여하고 백성의 생활을 통제하여 좀 더 효과적으로 거대 왕국을 다스리려고 했던 노력의 결과였다. 역사적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왕조의 번영을 가져오리라는 역사-인문학적 관점, 시대를 관통하는 보편적 이치를 찾으려는 학술적 경향은 漢 왕조 내내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흐름은 우언의 창작에도 여러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 첫째로 우언의 정치적 성격이 짙어진 것인데 때론 간언하는 신하로서, 혹은 실제 정치를 집행하는 담당자로서 당시 주류 세력들은 역사적 경험을 활용하여 새로운 왕조에 부합하는 주장을 내세워야 했기 때문이다. 둘째로 우언을 창작할 때 경전을 통해 자신의 관점을 제시하고 논증하는 수법이 유행하게 되었다. 이는 과거의 경험을 중요시하는

* 성균관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분위기가 전적들을 수집하고 재해석하는 방향으로 나아갔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六經에서 주장하는 이치를 자신의 관점에서 새롭게 정립하고 그러한 관점을 나타낼 수 있는 이야기를 서술한 후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이야기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 경전의 구절을 인용하는 논설 방법이다. 이처럼 서로 다른 구성 요소가 결합된 우언은 경전에 대한 장악력, 자신의 주장을 단계적으로 혹은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논리력, 이야기를 흥미롭게 풀어내는 서사 능력 등이 결합되어야만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선진 우언과는 다른 형태의 논설 방식이라 볼 수 있다.

이렇듯 漢代 우언 창작의 가장 큰 변화는 내용상으로 정치와 관련이 있는 주제가 많아졌다는 것이고, 형식적으로 의론과 서사의 결합이라는 논설 방식이 나타난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변화가 경학의 발전이라는 특수한 시대적 배경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그 영향 관계를 파악해보고자 시도한 것이다. 사실 사상과 문학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이 꾸준히 제기해 온 문제이다. 중국 고대 사회에서의 정치, 경제, 문화, 사상, 문학 등의 여러 분야는 그 경계가 모호하여 상호작용이 뚜렷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기의 외적 요인이 실질적으로 문학적 글쓰기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지, 혹은 작품 자체의 분석에서 출발하여 변화된 요소를 찾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¹⁾ 따라서 경학의 발전이 우언의 서사 방식을 다양화하는데 일조했다는 가설을 입증하는 과정을 통해 문학 외적 요인이 문학 내적 표현에 미친 영향에 대해 실증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선진 우언의 내용적, 형식적 답습이라는 평가를 받는 漢代 우언에 대해서도 그 시대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글쓰기 형태를

1) 경학과 문학의 영향관계에 대한 국내의 논문으로는 임진호의 〈한대의 사부창작과 경학〉(《중국학논총》 16집, 2003)과 신주석의 〈서한시기의 문학에 나타난 경학〉(《중국문화연구》 13집, 2008)을 들 수 있다. 전자는 한대 경학 발전이 辭賦 창작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 것이다. 내용적으로는 풍간의 작용이 강조된 것, 형식적으로는 경서의 문장구조와 문자의 운용 등이 글쓰기 방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후자는 경학이 서한 문학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 원인을 자세하게 논의한 것이다. 상기의 논문에서 공통적으로 경학과 문학의 상관관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대체로 辭賦를 위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우언과 같은 산문 영역의 논의는 많지 않았다. 또한 국내와 중국에서 우언 연구는 주로 선진 시기에 집중되어 있으며 한대 우언에 대한 논문은 한 편도 없었고 우언 연구 경향을 살펴보았을 때 문학적 특징과 서사적 본질에 대해 논의하거나 개별 작가의 작품 분석에 치우쳐 있으므로 우언의 글쓰기 형태 변화와 외부 요소와의 영향관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보여주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西漢 經學 흥성과 ‘依經立論’ 풍조

經學은 漢代 學士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그러나 한 초기에는 秦 法家 사상의 영향과 黃老之學의 성행으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지는 않는다.²⁾ 천하를 통일하고서 12년이 지난 惠帝 4년에야 비로소 진나라 때 반포된 挾書律을 폐지하고³⁾ 焚書坑儒 탓에 단절된 학문을 발흥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진다. 이어 文帝로부터 景帝에 이르기까지 천하에 남아 있는 책들을 찾아 국가에 헌납하게 하도록 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유가의 경전을 중요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종래 구전되어 오던 각종 경전이 당시 통행되었던 隸書로 베껴져서 조정에 바쳐지게 되었고 흩어져 있던 경서전적을 다시 정리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 하나의 전문적 학문이 발흥하게 되었다. 이렇듯 경학은 유실된 유가경전을 복원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유학을 정치이념으로 공포한 이후에는 단순히 경전을 수집하고 연구하는 학술적 차원에서 벗어나 지식인들의 일상생활을 통제하고 의식행태를 지배하는 구체적인 준칙이 되었다. 다음의 기록들을 살펴보자.

武帝가 즉위했을 때, 魏其와 武安侯를 승상으로 삼고, 儒家를 존중하였다. 董仲舒가 대책을 내어 공자의 유가 학술을 推舉하고, 百家를 억누르고 물리쳤다. (自武帝初立, 魏其, 武安侯爲相而隆儒矣. 及仲舒對策, 推明孔氏, 抑黜百家.)⁴⁾

동중서의 건의로 무제는 결국 백가를 축출하여 유가가 독존의 지위에 오르도록 하였다. 경학은 지배계층의 정식 통치사상으로 자리매김하였고, 황제가 인정한 사상에 대한 지식 계층의 추종이 이어졌을 것이다. 《文心雕龍》의 기록을 보면 무제는

2) 한 초기의 爲政者들은 공개적으로 法家를 제창하지는 않았지만 군주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법가에서 말하는 權術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또한 法의 테두리에 道의 주장을 접목해 군주의 초월적 권력을 세우려고 하는 등 유가뿐 아니라 법가, 도가 등 여러 사상이 함께 받아들여졌다.

3) 班固 《漢書憲帝紀》: 「四年 …… 三月甲子 …… 省法令妨吏民者; 諸挾書律。」(北京, 中華書局, 1999), 90쪽

4) 班固 《漢書·董仲舒傳》, 北京, 中華書局, 1999, 2525쪽

학자를 존중하여 글로써 표현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公孫弘의 〈對賢良策〉을 높이 평가하여 최고 지위로 승진시키고, 司馬相如나 朱買臣 등의 글을 좋아하여 출신 성분이 좋지 않은 그들을 높은 지위에 이르도록 하였으며 司馬遷, 嚴安, 枚臯 등의 학자들은 황제의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하였다고 한다.⁵⁾ 이처럼 국가의 대소사를 유학의 관점으로 풀어내면서 경학의 영향력이 점차 커졌다고 볼 수 있다. 무제 이후에도 이러한 분위기가 이어져 宣帝는 학자들과 石渠閣에서 경서의 해석들에 관해 논의하였고, 경학에 근거한 문학 작품들이 창작되었다. 또한 경학의 중심인 예교와 도덕적인 교화를 위한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는데 疎廣에 대해 「춘추에 밝았으며 집에서 제자를 가르쳤는데, 배우고자 하는 자들이 사방에서 모여들었다. (明春秋, 家居教授, 學者自遠方至)」⁶⁾고 하였고, 後漢에 이르러서는 馬融에 대해 「가르치는 학생의 수가 항상 천여 명에 이르렀다. (教養諸生, 常有天數)」⁷⁾, 鄭玄에 대해서도 「젊었을 때부터 따르는 무리가 이미 수백 명이 되었다. (學徒相隨已數百千人)」⁸⁾고 할 정도였다. 이와 같은 기록을 살펴보면 유가경전을 연구하려는 유생이 매우 많았고, 관방의 학교뿐 아니라 지방의 사학과 민간에 이르기까지 경학에 대한 열풍이 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春秋》로써 소송 사건을 심리하고⁹⁾ 《易經》과 《尙書·洪範》으로 만물의 변화를 관찰하는 등¹⁰⁾ 사회·생활 각 방면에 경학이 직접적으로 관여하면서 봉건시대 사대부들의 의식 형성에 큰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經術을 통해 정치계로 나아갈 길이 열렸으니 五經博士와 같은 제도를 설치

5) 劉勰, 黃叔琳注 《文心雕龍校注·時序》: 「孝武崇儒, 潤色鴻業, 禮樂爭輝, 辭藻競驚, 柏梁展朝宴之詩, 金堤制恤民之詠, 征枚乘以蒲輪, 申主父以鼎食, 擢公孫之對策, 歎倪寬之擬奏, 買臣負薪而衣錦, 相如滌器而被繡. 於是史遷壽王之徒, 嚴終枚臯之屬, 應對固無方, 篇章亦不匱, 遺風餘采, 莫與比盛。」(北京, 中華書局, 2000, 539-540쪽)

6) 班固 《漢書·疏廣傳》, 北京, 中華書局, 1999, 3039쪽.

7) 范曄 《後漢書·馬融傳》, 北京, 中華書局, 2007, 1333쪽.

8) 范曄 《後漢書·鄭玄傳》, 北京, 中華書局, 2007, 811쪽.

9) 皮錫瑞 《經學歷史》: 「以春秋斷疑事疑獄, 漢世頗聖行。」(北京, 中華書局, 1981), 104쪽.

10) 皮錫瑞 《經學歷史》: 「漢有一種天人之學而齊學尤盛. 伏傳五行, 公羊春秋多言災異……, 易有象數占驗, 禮有明堂陰陽. …… 借天象以示儆, 庶使其君有失德者猶知恐懼修省 …… 漢儒藉此以匡正其主. 其時人主方崇經術, 重儒臣, 故遇日食地震, 必下詔罪己, 或責免三公. 雖未必能如周宣之遇災而懼, 側身修行, 尙有君臣交儆遺意. 此亦漢時實行孔教之一證。」 106쪽.

하여 인재등용의 방편으로 삼은 것이 그것이다. 경학 연구가 크게 유행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치적 제도가 뒷받침되어 계속하여 口誦으로 전수되었던 각 경전마다 박사제도를 두기에 이른다.¹¹⁾ 유생들은 과거시험을 보지 않아도 추천을 통해 관직에 오를 수 있었고¹²⁾, 「循吏들이 經意를 추론하여 백성을 쉽게 교화시켰으니 경술을 통해 관리의 업무를 할 수 있었다.(一時循吏多能推明經意, 移易風化, 號爲以經術飾吏事)」¹³⁾라는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중앙 정부뿐 아니라 백성을 관리하던 循吏까지도 경전의 뜻을 연역 하여 정치 행정에 적용시켰다.

이와 같이 경학은 처음의 학술적 영역에서 벗어나 통치의 기준이 되었을 뿐 아니라 관리의 등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고, 백성의 도덕 윤리 관념을 정화하는 일종의 표준이 되었다. 새로운 가치체제로 백성을 교화하고 분산되어 있었던 사상을 하나로 모아 통일 왕국을 확립하려 했던 한대의 노력이 경학 발전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정치·사회적 분위기는 글쓰기 영역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바로 '依經立論'의 풍조가 크게 유행한 것이다. 특히 六經은 당시 지식인들의 학식과 사상체계를 드러낼 수 있는 수단이 되어 경서를 암송하고 그 구절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풍조가 일어나게 되었다. 「옛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은 항상 오늘날의 사건과 결합해 말을 하고 먼 과거의 일을 능력 있게 기술하는 사람은 항상 가까운 사례를 들어 고찰한다.(善言古者合之於今, 能述遠者考之於近.)」¹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과거를 통해 현실을 설명하고, 유가의 경전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연결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저술 상의 변화와 경학의 영향력에 대해 皮錫瑞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元帝와 成帝 이후 形名學이 줄어들었다. 위로는 異教가 없어졌고, 아래로는 다

11) 초기의 五經博士는 易, 詩, 書, 春秋, 禮에 관한 것이었고, 경학 연구가 크게 유행하자 詩 三家, 易 四家, 書 三家, 禮 二家, 春秋公羊 二家로 확대된 十四經博士가 설치되었다.

12) 효행이 뛰어나거나 덕행이 훌륭하며 청렴한 사람은 과거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추천을 받아 관직에 나갈 수 있는 孝廉제도가 시행되었다. 경학을 업으로 하는 유생들이 관료로 대거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13) 皮錫瑞 《經學歷史》, 北京, 中華書局, 1981, 103쪽.

14) 《新語·術事》

른 학문이 없어졌다. 황제의 詔書, 군신 간의 奏議는 경서의 문구를 인용하여 의거로 삼지 않는 것이 없었다. 나라에 큰일이 있으면 《春秋》를 인용하여 판단하였다. (元成以後, 刑名漸廢, 上無異教, 下無異學. 皇帝詔書, 群書奏議, 莫不援引經文, 以爲據依.)¹⁵⁾

이와 같이 원제와 성제 이후에는 유가의 입지가 확실해져 법가나 황로술이 설 자리가 없어지면서 사상적으로는 大一統의 국면이 형성되었고, 정치적인 글은 모두 경문을 인용하는 방법을 통해 주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경문의 미묘한 표현 속에 숨은 깊은 뜻을 찾는 공양학이 유행하는 것도 이러한 분위기와 관계가 있다. 《文心雕龍》에는 좀 더 구체적인 기술이 보인다.

揚雄은 《百官箴》에서 《詩經》과 《書經》의 구절들을 인용했고, 劉歆은 《遂初賦》에서 옛 역사서들의 서술체계를 따랐는데, 점차 전고의 수법이 광범위하게 운용되었다. 崔駰, 班固, 張衡, 蔡邕 등에 이르러서는 經書와 史書의 구절을 인용하여 문구를 화려하게 꾸미거나 논리를 펼치는 것을 가장 큰 성취로 보게 되었고, 모두 후세 문인들의 전범이 되었다. (及揚雄百官箴, 頗酌於詩書, 劉歆遂初賦, 歷敘於紀傳, 漸漸綜採矣. 至於崔班張蔡, 遂摺摭經史 華實布濩, 因書立功, 皆後人之範式也.)¹⁶⁾

또한 〈時序〉에서는 유학의 지위 상승과 그에 따른 글쓰기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한나라 중흥 이후 문인들은 전대의 방법을 고쳐 형식과 내용의 근거를 경서의 문장에서 구하게 되었으니 이는 아마도 역대의 통치자들이 유교사상을 고취하였기 때문에 점차 유풍에 젖어들게 된 것이다. (然中興之後, 群材稍改前轍, 華實所附, 斟酌經辭, 蓋歷政講聚, 故漸靡儒風者也.)¹⁷⁾

이상의 인용문을 통해 한대 문장의 창작 경향을 알 수 있다. 辭賦는 경전의 구절을 이용하여 황제의 공덕을 찬양하고 六經의 예교를 중시하여 經義를 작품의 핵심적인 주제로 삼는 경우가 많았다. 정치적인 문장과 산문 또한 전대의 글쓰기 방법

15) 皮錫瑞《經學歷史》, 北京, 中華書局, 1981, 103쪽.

16) 劉勰《文心雕龍·事類》

17) 劉勰《文心雕龍》

을 광범위하게 수용하고, 그 근거를 경서의 문장으로 구했으니 경학이 지배계층의 통치 사상으로 자리매김한 이후 의식형태의 변화가 글쓰기 형태의 변화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Ⅲ. 우언 논설 방식의 변화

경학 유행으로 인한 漢代 우언의 가장 큰 형식적 변화는 경전의 직접 인용 빈도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韓詩外傳》, 《淮南子》, 《新序》 등 주요 우언 작품이 수록된 저작¹⁸⁾을 통해 논설 방식의 변화와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경서 인용 우언의 증가

첫째, 우언에 직접 인용되는 경전 구절의 양적 팽창이다. 경문을 직접 인용하였다고 판단한 우언은 「詩經曰」, 「孔子曰」과 같이 이야기에 인용한 문장의 출처가 확실하게 드러난 경우에 한했다. 경서를 직·간접 인용하는 예는 선진 시기부터 보이지만¹⁹⁾ 출처를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방식은 경전에 대한 창작주체의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야기의 끝에 경문을 인용하여 증명하는 패턴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依經立論’으로 인한 논설 방식 변화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18) 拙稿 《漢魏晉南北朝寓言研究》에서 중국의 우언 연구저작과 선집에 등장하는 우언 작품을 취합 한 후, 우언이라 볼 수 없는 작품과 중복되는 작품을 제외한 목록을 작성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韓詩外傳》에는 11편, 《淮南子》에는 60편, 유향의 《說苑》, 《新序》에는 44편이 수록되어 있다. 漢代 우언의 전체 편수가 174편인 것을 감안하면 과반수 이상의 우언이 이상의 저작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上海, 復旦大學 博士學位論文, 2011, 197-206쪽 「漢魏晉南北朝寓言目錄」 참조) 따라서 이상의 저작에 나타난 우언 작품 분석을 통해 논설 방식 변화를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19) 《論語》: 「曾子有疾, 問弟子曰: 啓予足, 啓予手, 詩云: 戰戰兢兢, 如臨深淵, 如履薄氷。」

〔표〕 경서 직접 인용 우언²⁰⁾ 편수

시대	우언총수	경서인용편수
兩漢寓言	174편	26편
魏晉南北朝寓言	128편	2편

위의 표를 살펴보면 경전을 인용한 우언이 양한 시기에 증가하였다가 위진 시기에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한 유가의 확립과 과거 경험의 중시,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경전에서 구하는 글쓰기의 유행과 관계가 깊다. 경전을 인용한 우언은 모종의 주제를 쉽게 전달하기 위해 짤막한 이야기를 서술하고, 그 이야기와 관계있는 경전 구절을 인용함으로써 설득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위진남북조에 이르러 이러한 현상이 줄어들게 된 이유는 먼저 문학적 글쓰기의 기법이 발전한 것을 들 수 있다. 경전의 구절과 이야기라는 이질적인 요소가 한 공간에 존재하면 청자의 집중도를 떨어트리고 이야기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인식이 대두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章句之學’의 폐해로 경학 연구가 쇠퇴하여 경전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진 점도 들 수 있다. 이는 동시에 漢代 우언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²¹⁾ 그러나 실제로 작품을 분석하였을 때 이야기와 경전 구절이라는 서로 다른 요소를 자연스럽게 배치하기 위해 이야기에 살을 붙이거나 경전 구절을 인용함으로써 이야기의 설득력이 높아지는 경우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경전을 인용한 논설 방식이 등장하여 이야기의 서사와 다양

20) 위의 표에서 설정한 우언은 당시 글을 쓴 주체들이 우언이라는 특수한 글쓰기 혹은 장르로 인식하고 쓴 것이라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현대인의 관점에서 우언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분류한 후 얻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牽強附會한 면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본고의 목적은 주로 우언 논설 방식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 현상들로부터 귀납하여 보편적 법칙을 찾아내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관점으로 우언 작품을 선별하고 분석하는 것이 무리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經書라 하면 일반적으로 유가 저작에 한정되나 현재의 관점으로 經典이라 지칭했을 때는 제자서류, 역사서까지 아우를 수 있고 좀 더 많은 우언을 분석하기 위해 유가 저작이 아닌 《老子》를 논의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21) 陳蒲清은 「漢代에 와서 전고를 추구하는 쪽으로 발전하여 줄거리를 완전하게 기술하기에는 부족했다. 이러한 상황이 일반 이론 저작 중의 우언을 감소시켰다.」라고 기술하였다. 전고의 인용 때문에 서사(우언)가 발전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오수형 옮김 《중국우언문학사》, 소나무, 1994, 123쪽)

한 서술 방식이 발전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둘째, 다양한 경전 구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는 것이다. 인용된 경전의 종류와 출전은 다음과 같다.

[표] 인용 경전 종류와 출전

직접 인용	편수	출전
《詩經》	14	韓詩外傳 卷二 魯監文之女嬰相從績 韓詩外傳 卷三 齊桓公設庭燎 韓詩外傳 卷三 公儀休相魯而嗜魚 韓詩外傳 卷七 齊有隱士東郭先生 韓詩外傳 卷八 齊莊公出獵 韓詩外傳 卷九 楚有善相人者 韓詩外傳 卷十 齊宣王與魏惠王會田於郊 韓詩外傳 卷十 晉平公之時 淮南子 人間 秦牛缺徑於山中 新序 雜事四 楚熊渠子夜行 新序 雜事五 子張見魯哀公 新序 雜事五 宋玉因其友以見於楚襄王 新序 雜事五 孔子北之山戎氏 新語 辨惑 至如秦二世之時
《老子》	7	韓詩外傳 卷三 公儀休相魯而嗜魚 新書 退讓 梁大夫宋就者爲邊縣令 淮南子 人間 昔者智伯驕 淮南子 道應 公儀休相魯 淮南子 道應 秦穆公謂伯樂曰 淮南子 道應 趙簡子以襄子爲後 淮南子 道應 楚將子發好求技道之士
《春秋》	1	新序 雜事五 田饒事魯哀公而不見察
《易經》	1	新語 辨惑 至如秦二世之時
孔子曰	3	韓詩外傳 卷十 楚莊王將興師伐晉 說苑 臣術 簡子有臣尹綽 說苑 政理 齊桓公出獵
君子曰	2	淮南子 人間 智伯率韓魏二國伐趙 說苑 君道 晏子沒十有七年
其他 典籍	2	符子 桀觀炮烙於瑤台 符子 太公涓釣於隱溪

위의 표를 통해 다양한 경전이 인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詩經》, 《春秋》, 《易經》, 《老子》가 인용되었고 「孔子曰」, 「君子曰」과 같이 권위 있는 인물의 말로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삼는 우언도 있었다. 그러나 인용 빈도가 제일 높은 전적은 《詩經》이다. 《시경》을 풀이한 《韓詩外傳》뿐 아니라 《說苑》 또한 《시경》을 가장 많이 인용하였고²²⁾, 노장사상의 영향을 받은 잡가 성향의 《淮南子》에도 《시경》이 인용된다.

그렇다면 왜 《시경》인가? 이는 다음 구절을 통해 생각해볼 수 있다.

聖王이 시를 채집하는 일이 폐지된 뒤에 《詩經》 또한 없어졌고, 《시경》이 없어 지자 공자께서 《春秋》를 저술하셨다. 쑤나라에서는 乘이라 하였고, 楚나라에서는 檣杵이라 하였으며, 魯나라에서는 춘추라 하였으니, 이 모두는 같은 것이다. 齊桓公과 晉文公의 일을 기록한 것에 불과하고, 사용한 필법은 일반 역사서의 필법에 불과할 뿐이다. (공자의 춘추는 그렇지 않았으니) '시 삼백 편에 선악을 포폄하는 대의를 덧붙였는데 나는 춘추에서 이를 빌려 썼다'라고 하였다. (王者之跡熄而詩亡, 詩亡然後春秋作. 晉之乘, 楚之檣杵, 魯之春秋, 一也. 其事則齊桓, 晉文, 其文則史. 孔子曰: '其義則丘竊取之矣.')

민간의 시를 채집한 이유는 풍속을 살피고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려 함이다. 그러나 주나라의 예법이 무너지고 인의의 도가 쇠미하여 신하가 군주를 시해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시대가 도래한다. 그리하여 공자는 이러한 일들을 경계하기 위하여 《시경》에 선악을 포폄하는 뜻을 풀이한 것처럼 역사에 대해서도 자신의 견해가 반영된 《춘추》를 지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漢代 우언에 《시경》이 많이 인용된 것은 자신의 사상을 주장하면서 역사적인 판단을 통해 구체화하려고 했던 공자의 뜻을 계승하고, 《춘추》의 필법을 본받아 기존의 역사 사건과 사상에 대해 현재의 관점에 비추어 다시 한 번 평가하겠다는 한대 지식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동시에 경학의 유행이라는 시대적 배경과 맞물려 여러 경전 중에서도 공자가 중요시한 《시경》의 뜻을 풀이하고 정식 국교로 채택된 유교의 정치화를 꾀하기 위한 측면이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오경박

22) 艾春明의 《韓詩外傳研究》에서 《說苑》 인용 방식 통계표를 참고하였다. 그에 따르면 《詩經》은 54곳, 《左傳》은 27곳, 《易經》은 19곳, 《論語》는 18곳, 《老子》는 12곳에서 인용되었다. (東北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08, 122-123쪽 참조)

23) 《孟子·離婁下》

사 중에서도 가장 먼저 설립된 것이 시경박사였고 《시경》이 한대 문학 전반에 미친 영향, 특히 賦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고대부터 이미 여러 학자들이 지적하였는데²⁴⁾ 다음은 《시경》의 풍유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였던 한대 지식인의 문예관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大雅는 왕공과 대인을 이야기하여 백성에게 덕이 미치게 하고, 小雅는 소인의 득실을 풍자하여 그 영향이 위로 미치게 한 것이다. 때문에 비록 말의 표현 양식은 서로 다르지만 덕에 합치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司馬相如의 글은 비록 공허한 말과 분방한 설명이 많지만 그 주요한 뜻은 절약과 검소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시경》의 풍간과 어찌 다르겠는가? (大雅言王公大人而德逮黎庶, 小雅譏小己之得失, 其流及上. 所以言雖外殊, 其合德一也. 相如雖多虛辭濫說, 然其要歸引之節儉, 此與詩之風諫何異.)²⁵⁾

司馬遷은 사마상여의 글에 대해 형식적으로는 수사가 많지만 담고 있는 내용은 현실에 대한 비판 정신이 농후하기 때문에 《시경》의 풍유정신과 상통한다고 평가하였다. 운문의 형태인 賦가 직접적으로 《시경》의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면, 산문의 영역에서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야기와 시경 구절의 결합이라는 특수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즉 《시경》의 풍유정신과 공자의 사상을 계승하고, 《춘추》의 필법을 통해 유가의 주장들을 정식으로 공론화하여 정치로 편입시키려는 노력이 《시경》의 인용을 촉발시킨 것이다.

이에 대해 徐復觀은 先秦에서 西漢에 이르기까지의 사상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 《춘추》의 필법을 이어받은 사학가의 언어와 《논어》와 《노자》의 필법을 이어받은 철학가의 언어로 나누고, 한대의 산문은 사학가의 언어로 쓰였음을 주장한 바 있다.²⁶⁾ 전체적으로 우언의 창작 경향을 살펴보았을 때 선진시기에는 주로 형이상학적 철학, 사상의 풀이를 위한 도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에 반해 한대에 이르러서는 앞서 설명한 《시경》의 대의와 《춘추》의 필법 등을 수용하여 좀 더 시대 비판적이고 이야기가 드러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서복관의

24) 班固 〈兩都賦序〉: 「부리는 것은 옛 시경의 유파이다.(賦者, 古詩之流也.)」, 章學誠 《校讎通義》: 「옛날 부를 짓는 사람들은 시경과 이소를 근본으로 했다.(古之賦家者流, 原本詩, 騷.)」(中華書局, 1978, 47쪽)

25) 司馬遷 《史記·司馬相如列傳》, 中華書局, 2009, 3073쪽.

26) 徐復觀 《兩漢思想史》 제3권,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04, 1-4쪽.

주장과 일치한다. 이처럼 시대 비판적인 성격을 지니고 과거의 저작을 광범위하게 수용하는 과정에서 경전이 인용되었고, 우언의 설득력도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2. 《韓詩外傳》²⁷⁾, 《淮南子》에 나타난 우언의 논설 방식

《韓詩外傳》은 《詩經》을 풀이한 저작이다. 韓嬰의 창작 의도와 관련하여 《漢書》에 「한영은 시인의 뜻을 미루어 내외전 수만 언을 지었다.(嬰推詩人之意而作內外傳數萬言)」²⁸⁾라는 기록이 보인다. 《시경》의 함축적이고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구절을 쉽게 해설하겠다는 것이 한영의 주된 목적임을 알 수 있다. 《한시외전》의 구성은 독특하다. 지금 전해지는 판본은 모두 10권, 310장이고, 그 중 83장은 국풍을 인용하였으며 《시경》이 인용되지 않은 장은 26장에 불과하다.²⁹⁾ 《시경》이 인용된 장은 짤막한 이야기와 이야기의 말미에 덧붙인 《시경》의 구절로 이루어진다. 다음의 우언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齊 莊公이 사냥을 나갔는데, 사마귀 한 마리가 앞발을 들고 수레바퀴에 대드는 것이었다. 장공이 그 마부에게 물었다. “이게 무슨 벌레인가?” 그러자 마부는 이렇게 설명하였다. “이것은 사마귀입니다. 이 곤충은 앞으로 나갈 줄만 알지 물러설 줄을 모르는 놈입니다. 자신의 힘은 헤아리지 않고 적에게 달려드는 성질이 있지요.” 이 설명에 장공은 “사람으로 친다면 틀림없이 천하의 용사가 될 놈이로다.” 하고는 수레를 돌려 피해 버렸다. 그러자 용사들이 모두 그를 따르게 되었다. 《詩》에서는 “탕 임금 태어나심이 늦지 않았네.”라고 말하였다. (齊莊公出獵, 有螳螂舉足將搏其輪, 問其禦曰: “此何蟲也?” 禦曰: “此是螳螂也. 其爲蟲, 知進不知退, 不量力而輕就敵.” 莊公曰: “此爲人必爲天下勇士矣.” 於是迴車避之, 而勇士歸之. 《詩》曰: “湯降不遲, 聖敬日躋.”)³⁰⁾

27) 《한시외전》은 《시경》을 해설하겠다는 확고한 목표로 지어진 전적이므로 《시경》구절의 인용은 자연스러운 귀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야기로써 경전을 풀이했고 그에 따른 서사 방식이 이야기와 경전 구절의 결합이라는 특수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형식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논의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28) 班固 《漢書·儒林傳》, 中華書局, 1999, 2680쪽

29) 艾春明 《韓詩外傳研究》: 「韓詩外傳共310章, 其中無引詩的26章, 引國風者83章, 只占27%.」(東北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08, 25쪽)

30) 韓嬰撰, 許維通校釋 《韓詩外傳集釋》, 中華書局, 2005, 303-304쪽.

위의 우언은 《한시외전》 우언의 가장 대표적인 논설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이야기를 인용하고 이어 짝막한 《시경》의 구절로써 앞서 나온 이야기를 증명하는 방식이다. 혹은 이야기를 서술하기 전에 간단한 논설이 등장하기도 한다. 대부분 이야기의 끝에는 《시경》이 인용되지만 인용이 없는 26장에 대해서는 판본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즉 처음에 한영이 《한시외전》을 지었을 때는 모든 장에 《시경》이 인용된 형태라는 주장이다.³¹⁾ 모든 장이 이야기(논설)와 시의 결합이라는 형태라고 가정한다면 분명히 기준에 볼 수 없었던 구성으로 이루어진 저작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개별 이야기들을 놓고 본다면 《시경》의 구절과 이야기의 결합이라는 논설 방식은 《荀子》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³²⁾ 다른 점이라면 비유적인 짝막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줄거리가 있는 구체적인 이야기이고, 산발적인 인용이 아니라 《시경》을 풀이하겠다는 뚜렷한 목적으로 전체적인 구성을 구상했다는 것이다. 《순자》의 사상이나 구성 방식을 수용하되, 당시 경학의 유행과 '依經立論'하는 논설 방식이 영향을 미쳐 《한시외전》의 독특한 구성을 이뤘다는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한시외전》의 이러한 논설 방식은 《회남자》의 기술에도 영향을 준다. 「그 서술이 제시나 노시와는 달랐으나 말하는 바는 같았다. 회남자가 그 영향을 받았다.(其語頗與齊魯間殊, 然歸一也. 淮南奮生受之)」³³⁾라고 한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그 스스로도 《要略》에서 회남자의 창작 목적에 대해 「무릇 이 책을 지어 논하는 것은 도와 德을 밝히고 人事의 방법을 바르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여 널리 설명하면 근본을 떠나 末節에 사로잡힌다. 즉 도를 말하고 事를 말하지 않으면 세상과 멀어질 염려가 있고, 事를 말하고 도를 말하지 않으면 만물의 변화에 유연하게 몸을 만길 수 없다.(夫作爲書論者, 所以紀綱道德, 經緯人事 故多爲之辭, 博爲之說, 又恐人之離本就末也. 故言道德而不言事, 則無以與世浮沉, 言事而不言道,

31) 이에 대해서는 徐復觀 《兩漢思想史》 제3권(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04, 6쪽) 참조.

32) 《荀子·勸學》: 「君子曰, 學不可以已. 青取之於藍 而青於藍 冰水爲之 而寒於水 木直中繩 輒以爲輪 其曲中規 雖有槁暴 不復挺者 輒使之然也 故木受繩 則直 金就礪 則利 君子 博學而日參省乎己 則知明而行無過矣 故不登高山, 不知天之高也 不臨深谿 不知地之厚也 不聞先王之遺言 不知學問之大也. 干, 越, 夷, 貉之子, 生而同聲, 長而異俗, 教使之然也. 詩曰, 嗟爾君子, 無恒安息. 靖共爾位, 好是正直. 神之聽之, 介爾景福. 神莫大於化道, 福莫長於無禍.」

33) 班固 《漢書·儒林傳》, 北京, 中華書局, 1999, 2680쪽.

則無以與化遊息)」³⁴⁾라고 하였다. ‘多爲之辭’와 같이 언어적 표현에만 힘을 쓰지 않고 많은 이야기를 모아 세상의 이치를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서 도덕은 자연의 이치, 天道를 뜻한다. 결국 통치자가 천도와 인사를 두루 살펴 통일 왕국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회남자》의 궁극적 목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저술의 구성도 가늠해볼 수 있다. 즉 事(이야기)와 道(도리, 이치)를 균형적으로 제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기 때문이다. 이야기 위주로 서술된다면 그 재미에만 빠져 깊은 뜻을 이해하기 어렵고, 이치를 설명하는데 치중한다면 읽는 이의 흥미를 떨어뜨릴 수 있다. 《시경》의 微言大義를 밝히고자 한 《한시외전》에 비해 작자의 중점이 이야기로 옮겨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회남자》는 여러 사상을 통합적으로 수용하여 雜家의 저작에 속한다. 경전 인용 부분에 있어서 《한시외전》과 다른 점은 《老子》의 인용 빈도가 높다는 것이다. 《회남자》의 우언은 주로 〈道應訓〉과 〈人間訓〉에 집중되어 있는데 대체로 이야기의 말미에 《노자》의 구절을 인용하였다.

趙簡子が 襄子を 후사로 정했을 때 董闕于가 “無恤은 미천한 출신인데 이제 후사로 정하심은 어찌 된 일입니까?”라고 물었다. 조간자가 대답하기를 “양자는 국가를 위해 부끄러움을 참아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 후 知伯이 양자와 함께 술을 마실 때 양자의 머리를 때렸다. 무례함을 보고 분노한 대부들이 지백을 죽이자고 청하자 양자는 “선군께서 나를 후사로 세울 때 국가를 위해 부끄러움을 참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소. 사람을 찌를 수 있다는 말씀을 한 적은 없으시오.”라고 하였다. 10개월 정도 지나 지백은 양자를 晉陽에서 포위했다. 그러자 양자는 군대를 나누어 이를 쳐서 크게 이기고 지백의 머리를 베어다가 술잔으로 사용했다. 그러기에 《老子》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 雄을 알면서 또한 그 雌를 지키면 천하의 골짜기가 될 것이다.” (趙簡子以襄子爲後, 董闕于曰: “無恤賤, 今以爲後, 何也?” 簡子曰: “是爲人也, 能爲社稷忍羞.” 異日, 知伯與襄子飲, 而批襄子之首. 大夫請殺之. 襄子曰: “先君之立我也, 曰: 能爲社稷忍羞. 豈曰能刺人哉!” 處十月, 知伯圍襄子於晉陽, 襄子疏隊而擊之, 大敗知伯, 破其首以爲飲器. 故老子曰: “知其雄, 守其雌, 其爲天下谿.”)³⁵⁾

위의 우언은 〈도응훈〉에 나오는 것으로 《史記》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34) 何寧《淮南子集釋·要略》, 北京, 中華書局, 1998, 1438-1439쪽.

35) 何寧《淮南子集釋》, 北京, 中華書局, 1998, 833-834쪽.

〈도응훈〉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노자의 말로 매듭짓는 형식으로 통일되어 있어 역시 독특한 구성을 지닌다.³⁶⁾ 과거의 일을 정리하고 老莊의 말에 따라 도의 득실을 확인하고자 함이다. 이에 반해 〈인간훈〉은 ‘대전제 - 사례1, 사례2 - 결론(경서 인용)’이라는 논설 방식으로 전개된다. 사례1과 2는 ‘공이 있지만 의심받는 경우가 있고, 죄가 있지만 도리어 신뢰를 더 얻는 경우가 있다.’³⁷⁾와 같이 행위나 결과가 서로 대조되는 사항에 대한 각각의 실례들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경서의 구절을 인용하여 증명한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도응훈〉과 〈인간훈〉처럼 각 편에 대한 작가의 의도가 달랐다. 따라서 서로 다른 양상으로 이야기가 인용되지만 과거의 경전을 통해 자신의 관점을 증명하고 설득력을 높이고자 하는 방식은 일치하였다.

3. 《說苑》, 《新序》에 나타난 우언의 논설 방식

경전을 인용한 논설 방식은 劉向에 이르러 더욱 발전된 형태를 띤다. 자신의 사상 체계에 맞추어 경전의 구절을 인용한다는 특징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단순히 경전의 구절을 인용하거나 경전의 대의를 풀이하기 위해 끌어다 쓰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관점과 필요에 따라 전대의 자료를 취사선택하고 하나의 이야기를 서술한 후에 자신의 관점과 부합하다고 판단된 경전 구절을 인용해 이야기의 주제를 강조하는 방식이다. 다음의 우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자.

子張이 魯 哀公을 만났는데 이레가 지나도록 애공이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 “임금께서 선비를 좋아하는 것은 마치 葉公 子高가 용을 좋아하는 것과 흡사합니다. 그는 용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허리띠 장식에도 용을 그렸고 못을 파도 용 모양으로 했으며 집도 모두 용 무늬를 새겨서 꾸몄습니다. 이에 용이 소문을 듣고 그에게 내려와서는 머리를 창틀에 대고 들여다보며 꼬리를 마당으로 늘어뜨렸습니다. 섭공은 이를 보고 모든 걸 버리며 달아나면서 정신을 잃고 얼굴빛은 파랗게 질려버렸습니다. 섭공은 용을 좋아한 것이 아니라 용과 비슷하지만 용이 아닌 것을 좋아했던 것입니다. 지금 제가 임금께서 선비를 좋아하신다는 말을 듣고 천 리를 마다하지 않고 왔는데 이레 동안 거들떠보지도 않으시니 임금께서는 선비를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비 같으나 선비는 아닌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입

36) 老子 외에 莊子, 慎子, 管子이라고 되어 있는 이야기가 하나씩 있으나 대부분의 이야기는 노자의 구절로 끝맺는다.

37) 何寧 《淮南子集釋》, 北京, 中華書局, 1998, 829쪽.

니다. 《시경》에 ‘마음 속 깊이 간직하니, 언제나 잊힐까?’라고 하였습니다. 감히 이 말을 부탁하며 떠납니다.”(子張見魯哀公，七日而哀公不禮，……，曰：“君之好士也，有似葉公子高之好龍也。葉公子高好龍，鉤以寫龍，鑿以寫龍，屋室雕文以寫龍，於是夫龍聞而下之，窺頭於牖，拖尾於堂，葉公見之，棄而還走，失其魂魄，五色無主，是葉公非好龍也，好夫似龍而非龍者也。今臣聞君好士，不遠千里之外以見君，七日不禮，君非好士也，好夫似士而非士者也。詩曰：‘中心藏之，何日忘之。’敢託而去。”)³⁸⁾

말로는 선비를 좋아한다면서 실제로는 원칙을 잘 실천하지 못하는 위정자를 비판한 우언이다. 진정으로 나라를 위할 수 있는 인재를 잘 판별하고 항상 그들을 염두하며 적재적소에 잘 활용해야 된다는 주장을 피력하고자 함이고 그에 대한 근거로 마지막에 《시경》의 「中心藏之，何日忘之」라는 구문이 인용되었다. 그러나 《한시외전》이나 《회남자》의 구성과는 다른 점이 있다. 이야기를 일단락 맺고 경전의 구절을 첨가하지 않고 등장인물의 입을 빌려 자연스럽게 《시경》의 구절을 말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사와 의론 혹은 선진과 한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지닌 서로 다른 구절이 결합될 때의 이질감이 줄어들게 되며, 경전 구절의 이야기로의 편입이 좀 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후대의 저작인 《世說新語》에서는 주요 인물들의 대화 속에 출전을 밝히지 않고 경전의 구절을 자유롭게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³⁹⁾ 유향의 이러한 방식은 직접 인용에서 간접 인용으로 나아가는 과도기적 형태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전자의 방식보다 후자의 방식이 더욱 이야기에 힘이 실리게 된다. 물론 《한시외전》이나 《회남자》 우언처럼 “이야기 + 경전 인용”이라는 단순한 증명 방식을 지닌 것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방식 외에도 주요 인물들의 대화를 통하거나 혹은 유향 자신이 전지적 시점의 평가자로 등장해 경전의 구절을 인용하기도 하고, 하나의 이야기에 두 개 이상의 경전을 이용하기도 하는 등 보다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었다. 이는 경전의 원뜻을 풀이하는 방식과는 다르다. 결국 자신의 관점을 입증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성격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주목해야 할 것은 유향의 전대 자료에 대한 태도이다. 전대의 저작을 취

38) 劉向編著，石光瑛校釋《新序校釋》，北京，中華書局，2001，764-768쪽.

39) 劉義慶著，餘嘉錫箋疏《世說新語箋疏·言語》：“簡文作撫軍時，嘗與桓玄武俱入朝，更相讓在前。玄武不得已而先之，因曰：“伯也執殳，爲王前馳。”簡文曰：“所謂‘無小無大，從公於邁。’””(北京，中華書局，2009)，138쪽

합하고 일정한 주제에 맞게 재배치한 후 자신의 주장에 맞는 새로운 뜻을 도출해냈기 때문이다. 그가 전대의 저작을 이용하는 방법은 크게 다음과 같다. 원문을 그대로 인용, 요약하여 인용, 새로 덧붙이거나 제외하여 인용, 개작하여 인용, 문장의 대의만을 인용, 해석하여 인용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뒤의 세 가지 방법은 비록 인용한 문장이 경전에서 나왔으나 유학 자신의 뜻이 더욱 많이 반영된 것이므로 재창조된 것으로 봐야 한다. 결국 단순히 시대적 흐름에 따라 무비판적으로 경전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상 가치 체계 하에서 이야기들이 정렬되고, 그렇게 배치된 이야기들이 모여 유학의 창작 의도를 드러내는 또 다른 주제를 표현하는 것이다.

齊 桓公이 사냥을 나가 사슴을 쫓느라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한 노인을 만나자 “이곳이 무슨 골짜기인가?”라고 물었다. 노인은 “신이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소를 한 마리 길렀는데, 그 소가 암송아지를 낳았습니다. 그 새끼가 어느 정도 자랐기에 송아지를 팔아 망아지 한 마리를 샀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젊은이가 나타나 소는 망아지를 낳지 못하는데 어찌 당신의 것이냐고 따지더니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이웃사람들이 제가 망아지를 빼앗긴 것을 보고 저를 어리석다고 여겨 제가 사는 이곳을 우공지곡이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 설명에 환공은 “노인장은 과연 어리석소. 어찌 그 망아지를 주었던 말인가?”라고 말하고 궁중으로 돌아왔다. 이튿날 아침 환공이 관중에게 이 이야기를 하였다. 그랬더니 관중이 옷깃을 여미고 두 번 절하며 “이는 제가 어리석었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요임금 같은 분이 윗자리에 계시고, 구요 같은 분이 아래에서 법을 다스렸다면 어찌 남의 망아지를 엉뚱한 논리로 빼앗아 갔겠습니까? 또 설령 그러한 사기를 치는 자가 노인 앞에 나타난다 해도 그 망아지를 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노인은 법에 호소해도 바른 판결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망아지를 주고 만 것입니다. 청컨대 물러나서 정치에 대한 수양을 닦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공자가 이렇게 말하였다. “제자여 기록하라. 환공은 패군이며 관중은 훌륭한 신하로다. 지혜로우면서 오히려 스스로 어리석다고 하였는데, 하물며 그 환공이나 관중보다 못한 자라면 그 태도가 어찌해야 되겠는가?” (齊桓公出獵，逐鹿而走入山穀之中，見一老公而問之，曰：“是爲何穀？”對曰：“爲愚公之穀。”……對曰：“臣請陳之，臣故畜牝牛，生子而大，賣之而買駒，少年曰：‘牛不能生馬。’遂持駒去。傍鄰聞之，以臣爲愚，故名此穀爲愚公之穀。”桓公曰：“公誠愚矣，夫何爲而與之？”桓公遂歸。明日朝，以告管仲，管仲正衿再拜曰：“此夷吾之愚也，使堯在上，咎繇爲理，安有取人之駒者乎？若有見暴如是叟者，又必不與也。公知獄訟之不正，故與之耳，請退而修政。”孔子曰：“弟子記之，桓公，霸王也，管仲，賢佐也；猶有以智爲愚者也，況不及桓公，管仲者也。”⁴⁰⁾

위의 우언은 《說苑·政理》에 실려 있다. 〈정리〉편은 주로 치국의 도리에 관한 이야기를 모아놓은 것이다. 《설원》의 각 편은 유향의 주장과 연관이 있는 이야기들이 취합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⁴¹⁾ 따라서 〈정리〉편에서도 먼저 「是以聖王先德教而後刑法」⁴²⁾이라는 큰 주제를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취사선택하였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가 전대의 이야기들을 선택할 때 원본이 지닌 의미를 그대로 차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원본에 대한 자신의 해석에 따라, 혹은 그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이야기들을 재배치하였다.⁴³⁾ 위의 우언에서는 왕도를 중요시한 유향의 관점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인정을 베풀어 백성을 교화해야지 형법의 무서움으로 백성들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주제를 표현하고 있다. 이는 공자의 「不教而誅謂之虐」⁴⁴⁾라는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이지만⁴⁵⁾ 위의 우언에서 나타내고 있는 바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다. 형법을 시행하는 관리들의 엄격한 자기 수양과 공정한 사법 기관의 필요를 역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문장의 마지막에 공자의 말을 빌려 자신의 관점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는 논설 방법은 《한시외전》, 《회남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상의 우언을 통해 경전 인용을 통한 논설 방식의 모식을 도출해내었는데 다음과 같다. 먼저 사건 발생 배경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사건을 전개한다. 그런 후에 등장인물의 성격적 특성이나 행동을 통해 작가의 창작 의도를 노출한다. 주로 사람

40) 劉向《說苑·政理》，北京，中華書局，2009，148쪽

41) 〈君道〉편처럼 역사고사가 바로 시작되기도 하나 대부분은 〈申述〉편처럼 주제를 먼저 설명한 후 관련 이야기들을 모아놓았다. 〈군도〉편은 대전제를 직접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임금의 도리에 관한 이야기들이 수록되어 있어 유향의 의도를 알 수 있다.

42) 劉向《說苑·政理》：「政有三品，王者之政化之，霸者之政威之，強者之政脅之，夫此三者各有所施，而化之爲貴矣。夫化之不變而後威之，威之不變而後脅之，脅之不變而後刑之，夫至於刑者，則非王者之所得已也。」(北京，中華書局，2009)，143쪽

43) 余嘉錫은 《古書通例》에서 유향에 대해 「使後人得見周，秦諸子學說之全者，向之力也。」(上海古籍出版社，1985，104쪽)라고 평가하였다. 유향은 유가의 경전에 통달하였으며, 박학다식하여 전대의 역사적 경험을 잘 아울렀다. 사상적으로 유가를 중심으로 하되 각 학파의 학설을 융합한 그의 성향과도 관계가 있을 것이다.

44) 《論語正義》，北京，中華書局，1998，767쪽.

45) 徐復觀은 《兩漢思想史》에서 유향은 《春秋》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주장하였다.(上海，華東師範大學出版社，2001，41쪽)

들에게 익숙한 역사 사건을 채택하여 자신의 관점에 맞게 재창작하고, 그러한 관점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도록 경전의 구절이나 권위 있는 인물의 말을 문미에 배치하거나 사건에 대한 평가의 말을 덧붙인다. 이는 당시 유행했던 경전에 기대에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依經立論'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漢代 우언은 '논점 제시 → 이야기(사례)—경전 인용'이라는 고정된 형식을 통해 설득력을 높였다.

IV. 경서 인용 우언의 문학적 의의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경전 인용을 통한 글쓰기의 유행은 우언 창작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형식적으로는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닌 문장의 결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경전에 담긴 뜻을 이야기를 통해 알기 쉽게 풀어내려는 노력이고, 자신의 주장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논설 방식을 통해 작가의 경전에 대한 태도를 알 수 있다. 또한 역사고사의 광범위한 수용, 변형 과정을 통해 서사성이 가중되고 다양한 의미가 파생되게 된다. 본 절에서는 경학 발전이 우언의 주제와 서사 구조에 어떤 작용을 하였는지 분석함으로써 우언 발전사에 차지하는 漢代 우언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자 한다.

1. 전후 관계가 뚜렷한 논리 전개로 주제 부각됨⁴⁶⁾

漢代 우언은 비록 편폭이 짧고 이야기가 단순하지만 서사문학에서 말하는 '기승-전-결'이라는 구조를 갖추었다. 또한 하나의 작품 내에서 작가는 묘사와 서사, 의론이라는 각기 다른 장치를 통해 설득력을 높인다. 일반적으로 우언은 이야기와 寓意라는 두 가지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우의는 곧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주장의 핵심이고 이야기는 우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우의는 이야기의 주제를 통해 표현되기도 하고 작가가 직접 이야기에 등장해 한 마디로 개괄할 수도 있고,

46) 여기에서 전후 관계는 우언의 서사 단위들을 쪼개어 각 단위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주제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도입부에서 대전제 혹은 전체적인 주제를 평이하게 서술한 후 이야기를 통해 주제를 말하고 이야기에 덧붙여 경전의 구절을 인용하거나 자신의 평론을 통해 주제를 말한다면 3, 4단계에 걸쳐 같은 주제가 반복되게 되며 이야기만을 통해 함축적으로 주제를 표현하는 방식보다는 논리 전개가 보다 용이하다고 보았다.

등장인물의 언행을 통해 드러나기도 한다. 앞서 살펴본 경전의 구절을 인용하여 표현하는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경전의 주제와 이야기의 주제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구성된다. 그러나 창작 의도가 서로 다른 이질적인 문장이 하나의 작품 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뜻이 서로 연결이 되지 않는 예도 있다. 또는 갑자기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어 전체적인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독자의 몰입을 떨어트린다는 주장도 있다. 따라서 작가는 두 가지 요소를 자연스럽게 배치하고 자신의 주장을 더욱 선명하게 표현하기 위해 이야기의 말미에 전지적 시점으로 두 가지 요소를 아우르는 평론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된다. 이는 이야기만 제시하는 기존의 우연 창작 방법과는 다른 것으로 작가의 주장이 서로 다른 층위를 통해 전개되어 설득력을 높일 수 있고, 논리의 전후가 확실해지고 서술이 더욱 촘촘해지는 결과를 낳는다.

그 임무가 아닌 과중한 일을 떠맡으면 안 된다. …… 공적도 없는데 큰 이익을 얻은 자는 후에 재앙을 입게 될 것이다. …… / 옛날, 智伯은 승승장구하여 範氏, 中行氏를 쳐서 승리하자 다시 韓, 魏의 군주를 협박하여 토지를 할양받았는데, 그래도 만족하지 않고 마침내는 군사를 일으키어 趙나라를 쳤다. 그러나 이때는 한, 위가 등을 돌렸기 때문에 지백의 군단은 晉陽에서 크게 패했으며 그 자신은 高梁의 동쪽에서 죽었는데 그 두개골은 술잔이 되었고 그의 나라는 삼분이 되어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 이것은 만족할 줄 몰랐기 때문에 입은 화이다. / 《노자》는 “죽한 줄을 알면 욕을 당하지 않고 멈출 줄을 알면 위태롭지 않으며 그 몸을 오래 보전할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런 의미이다. (非其事者勿勿也, 非其名者勿就也. …… 無功而大利者後將爲害. …… / 昔者智伯驕, 伐範, 中行而克之, 又劫韓魏之君而割其地, 尚以爲未足, 遂興兵伐趙. 韓魏反之, 軍敗晉陽之下, 身死高梁之東, 頭爲飲器, 國分爲三, 爲天下笑. / 此不知足之禍也. / 老子曰: “知足不辱, 知止不殆, 可以修久.” 此之謂也.)⁴⁷⁾

마지막에 인용된 경전의 구절(죽한 줄을 알면 욕을 당하지 않고 멈출 줄을 알면 위태롭지 않으며 그 몸을 오래 보전할 수 있다)을 통해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가 더욱 설득력을 지니게 된다. 그렇다면 주제는 어떻게 부각되는가?

위의 이야기는 다양한 요소로 이루어진다. 먼저 공적이 없는데 이익을 얻게 되면 해를 입는다는 비교적 긴 논설이 등장한다. 그리고 〈人間訓〉의 대주제인 인간사의 득실과 처세에 관한 하위항목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는 과욕에 대해 설명한

47) 何寧《淮南子集釋》，北京，中華書局，1998，1174-1175쪽.

다. 그런 후에 주제와 관련이 있는 지백의 이야기가 서술되고, 이러한 역사적 사건에 대해 '이것은 만족할 줄 몰랐기 때문에 입은 화이다'라는 평가가 이어진다. 마지막에서는 《노자》의 구절을 인용하여 자신의 생각에 대한 근거를 밝힌다. 이처럼 서로 다른 네 가지 요소가 모두 '과유불급'을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따라서 주제는 더욱 부각되게 되고, 독자(청자)는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설명과 의론, 평론, 서사, 인용 등 서로 다른 요소가 의미하는 바를 한 곳으로 집중시키고, 각각의 주제가 잘 연결될 수 있게 배치한 것은 결국 작가의 역량이다. 단순히 경전의 구절과 이야기만 결합시킨다고 해서 독자(청자)는 자연스럽게 하나의 주제만을 연상하거나 작자의 의도를 이해할 수는 없다. 익숙한 경전 구절이 원래 나타내고 있는 주제로 인해 간섭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자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관점을 전달하면서 경전 구절과의 자연스러운 결합을 위해 왕왕 주제를 개괄하는 짤막한 설명이나 평가성 구문을 첨가하게 된다. 따라서 경전의 인용을 통한 논설 방식은 설득력을 높이면서 동시에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욱 뚜렷하게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2. 전대의 작품에 비해 작가의 주관이 더욱 드러남

이야기에 대한 평가성 구문이 첨가되면서 역사 사건에 대한 작가의 주관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자신의 감회나 판단을 직접 서술하기도 하고 경전의 구절이나 권위 있는 인물의 말로 대체하는 방법이 활용된다.

어떤 관리가 齊 桓公에게 일을 결재해 달라고 오자 환공은 “仲父(관중)에게 물어보시오”라고 하였다. 또 다른 관리가 와서 청하자 이번에도 똑같이 대답하였다. 이렇게 세 번을 하니 곁에 있던 자가 “하나도 중부에게, 둘도 중부에게 하니 입금 노릇하기 쉽다.”라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들은 환공은 “과인이 중부를 얻기 전에는 힘들었지만 이미 중부를 얻었으니 어찌 쉽지 않겠는가?”라고 대답하였다. 왕은 사람을 구할 때는 수고롭지만 현자를 얻고 난 후에는 편안하다. 환공은 관중을 등용하였지만 이는 작은 일이다. 결국 패자에 그쳤을 뿐 왕도까지는 성취하지 못한 것이다. 그 때문에 공자는 “작도다, 관중의 그릇이여”라고 하였다. 관중이 환공을 만난 것은 좋은 일이나 왕자에 이르게 하지 못함을 애석하게 여긴 것이다. 명석한 군주라면 그렇지 않고 그 쓰는 바가 컸을 것이다. 《시》에 “뛰어난 여러 선비들, 문왕은 이로써 편안하였네!”라고 하였으니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이다. (有司請吏於

齊桓公, 桓公曰: “以告仲父.” 有司又請, 桓公曰: “以告仲父.” 若是三. 在側子曰: “一則仲父, 二則仲父, 易哉爲君?” 桓公曰: “吾未得仲父則難, 已得仲父, 曷爲其不易也.” 故王者勞於求人, 佚於得賢. 舜舉衆賢在位, 垂衣裳, 恭己無爲, 而天下治. 湯、文用伊、呂, 成王用周、邵, 而刑措不用, 兵偃而不動, 用衆賢也. 桓公用管仲則小也, 故至於霸, 而不能以王. 故孔子曰: ‘小哉管仲之器!’ 蓋善其遇桓公, 惜其不能以王也. 至明主則不然, 所用大矣. 《詩》曰: ‘濟濟多士, 文士以寧’, 此之謂也.”⁴⁸⁾

《新序·雜事四》의 〈有司請吏於齊桓公〉편의 기본적인 이야기는 《韓非子》, 《呂氏春秋》에서 그대로 차용하였다.⁴⁹⁾ 그러나 말미에 공자의 ‘작도다, 관중의 그릇이여’ 라는 평가, 이어서 ‘관중이 환공을 만난 것은 좋은 일이나 왕자에 이르게 하지 못함을 애석하게 여긴 것이다. 명석한 군주라면 그렇지 않고 그 쓰는 바가 컸을 것이다’ 와 같은 자신의 해석과 평가성 구문을 추가하고, 《시경》을 인용하여 의견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고 있어 상기의 저서와는 다른 방식으로 전개된다. 《한비자》는 ‘사람 찾기는 어렵고, 사람 부리는 쉽다’라는 환공의 말을 반박하기 위해 위의 이야기를 제시하고 인재를 활용하는 일의 어려움에 대해 논설하였다. 환공의 법술에 논의의 초점이 맞추어 있다면, 《여씨춘추》에서는 도와 법술을 갖춘 인재를 찾기 어렵다는 것을 주장한다. 환공이나 관중에 대한 평가는 제외되고 위의 일화는 주제를 드러내는 예시로서의 성격만 지닌다. 《신서》에서는 공자의 말을 빗대어 관중에 대해 일차적인 평가를 하고, 왕자에는 이르게 하지 못한 관중의 한계, 인재를 잘 활용하지 못한 환공의 우매함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진다. 마지막 《시경》의 구절로 알 수 있듯이 유향은 문왕의 법도를 이상적인 것으로 삼았다. 역사인물에 대한 평가와 지향하는 바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한비자》에 비해 집약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작가의 주관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다음의 우언도 비슷한 예이다.

48) 劉向, 石光瑛校釋《新序校釋》, 北京, 中華書局, 2001, 471-476쪽.

49) 《韓非子·難二》: 「齊桓公之時, 晉客至, 有司請, 桓公曰 “告仲父”者三. 而優笑曰: “易哉爲君, 一曰‘仲父’, 二曰‘仲父’.” 桓公曰: “吾聞君人者勞於索人, 佚於使人. 吾得仲父已難矣, 得仲父之後, 何爲不易乎哉.”; 許維遜撰《呂氏春秋集釋·審分覽·任數》: 「有司請吏於齊桓公, 桓公曰: 以告仲父. ‘有司又請’, 公曰告仲父. 若是三. 習者曰: 一則仲父, 二則仲父, 易哉爲君! 桓公曰: 吾未得仲父則難, 已得仲父之後, 曷爲其不易也? 桓公得管子, 事猶大易, 又況於得道術乎?」(北京, 中華書局, 2009), 447쪽.

공자가 북쪽의 산을 넘어 땅에 갔는데 길가에서 어떤 부인이 슬피 울고 있었다. 그 울음소리가 너무나 애처로워 공자가 수레를 멈추고 물어보았다. “어째서 울음소리가 그토록 슬픈가?” 그러자 그 부인이 대답했다. “지난해 호랑이가 남편을 잡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아들까지 잡아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는 것입니다.” 그러자 공자가 물었다. “아 그렇다면 어째서 이곳을 떠나지 않는가?” 이에 그 부인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곳은 정치가 평온하고 관리들이 가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떠날 수 없습니다.” 공자는 자공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다. “제자야 기록해 두어라. 무릇 정치가 평온하지 못하고 관리가 가혹한 것은 호랑이나 이리와 같은 것이라고. 《시》에서 ‘하늘이 내리시는 죽음과 기근이 사방 나라를 온통 참벌 하시네!’라고 하였으니, 무릇 정치를 평안히 하지 못하면 하늘이 사방 온 나라를 참벌 하는 터에 한두 사람쯤이야 그냥 두겠는가? 그 부인이 떠나지 않은 것은 참으로 마땅하다.” (孔子北之山戎氏，有婦人哭於路者，其哭甚哀，孔子立輿而問曰：“曷爲哭哀至於此也。”婦人對曰：“往年虎食我夫，今虎食我子，是以哀也。”孔子曰：“嘻！若是，則曷爲不去也？”曰：“其政平，其吏不苛，吾以是不能去也。”孔子顧子貢曰：“弟子記之，夫政之不平而吏苛，乃等於虎狼矣。”詩曰：“降喪饑饉，斬伐四國。”夫政不平也，乃斬伐四國，而況二人乎？其不去宜哉！)⁵⁰⁾

위의 우언은 ‘苛政猛於虎’의 출전이 된 것으로, 《禮記》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⁵¹⁾ 《예기》와 다른 점은 《시경》의 구절이 인용되었고, 마지막 유향의 한탄과 이야기에 대한 평가로 끝맺는다는 것이다. 마지막 구절에서 역사 고사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이자 요약이 이루어지고, 작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압축되어 나타나게 된다. 《漢書·劉向傳》에 「전기와 행사를 채집하여 신서와 설원 총 50편을 지어 올렸다. 자주 상소하여 득실을 말하고 본받을 일과 경계할 일을 진술했는데, 글을 수십 차례 올려 임금께서 살펴보시는 것을 돕고 빠진 부분을 보충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임금께서 비록 모두 실행하지는 못했으나, 그 말을 가상하다고 받아들이며 감탄하셨다.」⁵²⁾라는 기록이 있다. 역사적 사건에 대한 주관적이고

50) 劉向, 石光瑛校釋《新序校釋·雜事五》, 北京, 中華書局, 2001, 714쪽.

51) 孫希旦《禮記集解》: 「孔子過泰山側，有婦人哭於墓者而哀。夫子式而聽之，使子路問之，曰：子之哭也壹似重有憂者。而曰：然，昔者吾舅死於虎，吾夫又死焉，今吾子又死焉。夫子曰：何爲不去也？曰：無苛政。夫子曰：小子識之，苛政猛於虎也。」(北京, 中華書局, 2007), 292쪽.

52) 班固《漢書》: 「及采傳記行事，著新序，說苑凡五十篇奏之。數上疏言得失，陳法戒。書數十上以助觀覽，補遺闕。上雖不能盡用，然內嘉其言，常嗟歎之。」(北京, 中華書局, 1999), 1958쪽.

직접적인 평가가 자주 등장하는 것은 이상의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우언을 창작하는 士 계층의 지위와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춘추전국 시대의 사 계층은 여러 나라를 떠돌면서 자신의 주장을 설파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군주를 선택했다. 따라서 간언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유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비해 한대의 사 계층은 비교적 지위가 안정되고 해야 할 바가 더욱 분명하고 단순해졌다. 임금에게 상소(奏)하고 간언(諫)하여 과거의 일로부터 교훈을 얻어내고 경계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임무가 되었다. 따라서 자신의 목소리가 이야기 속에 한층 더 드러나고, 감정의 발산은 곧 위정자에게 향하는 것이었다. 상소를 올릴 때마다 긍정과 찬탄을 금치 못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못하는 황제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 것이자, 확고한 주제를 여러 층위로 반복하여 전하고자 노력하였던 漢代 지식인의 의지가 이상과 같은 글쓰기의 양상으로 나타났다.

V. 나오는 말

우언은 산문의 발전과정과 불가분의 관계이다. 선진 시기 새롭게 대두한 사 계층은 유세의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 에둘러 말하는 기법을 사용하였고 그 효용성이 커지자 점차 쉬운 이야기 속에 자신의 의도를 숨기는 우언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정치·사상적 글쓰기의 영역에서 출발한 우언은 고유한 영역을 만들어 가며 자신만의 특성을 확립시켰지만 고대 중국에서는 철학과 역사, 문학이 서로 혼재되어 있었으므로 문학 내적 발전 과정과 법칙을 밝히기 위해서는 외적인 요소와의 영향관계에 대한 고찰이 꼭 필요하다. 그를 위해 漢代 유행한 경학과 산문의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보이는 '依經立論'의 글쓰기 방식이 우언의 영역에서는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며 그 문학적 의의는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서한 초기 경전이 확립되고 고전적 유산에 새로운 규범이 적용되면서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경전에서 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따라서 우언 또한 설득력을 높이는 한 가지 방법으로 경전의 구절을 인용하여 논증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선진 시기 대체로 '주장 + 예시1, 예시2'라는 논설 방식을 운용하는 것에 비해 양한 시기에는 '가설(주장) + 예시1, 예시2 + 결론(작가의 평론, 의론) + 경전 구절'과 같이 좀 더 복잡해지고 전후 논리가 확실한 논설 방식이 활용되었다. 형식적으로는 이러한 논리 모식을 도출해내었다면 내용적으로는 역사고사의 광범위한 수

용, 경전과 역사사건에 대한 재해석과 재평가가 이루어진 것이 이야기의 서사를 가중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기에 문학적 의의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 漢代 우언은 선진 우언의 답습일 뿐이라는 평가를 받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달리 그 시대만의 특징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고 과거의 이야기가 수용되고 재창조되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새로운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로 남겨두고자 한다.

【參考文獻】

- 王先慎 撰, 鍾哲 點校《韓非子集解》, 北京, 中華書局, 1998.
 何寧《淮南子集釋》, 北京, 中華書局, 1998.
 劉康德《淮南子直解》,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01.
 劉向 撰, 向宗魯 校證《說苑校證》, 北京, 中華書局, 2009.
 劉向 撰, 趙善詒 疏證《說苑疏證》, 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1985.
 劉向 編著, 石光瑛 校釋《新序校釋》, 北京, 中華書局, 2001.
 班固《漢書》, 北京, 中華書局, 1999.
 司馬遷《史記》, 北京, 中華書局, 1999.
 陳蒲清《中國古代寓言史》, 台北, 駱駝出版社, 1976.
 陳蒲清《中國古代寓言選》, 長沙, 湖南教育出版社, 1983.
 郭預衡《中國散文史》,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0.
 李澤厚《中國古代思想史論》, 天津, 天津社會科學院出版社, 2003.
 徐復觀《兩漢思想史》, 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01.
 楊義《中國敘事學》, 北京, 人民出版社, 1997.
 熊江梅〈先秦兩漢魏晉六朝雜史敘事結構簡論〉:《湖南工業大學學報》13권 1기, 2008.
 趙汝亮〈試論中國早期寓言的特點及其影響〉:《天中學刊》14권, 1999.
 임동석〈한대경학의 발전과 금고문과의 이견에 관한 일고〉:《인문과학논총》19집, 1987.
 이경무〈유학의 성립과 발달〉:《인문과학연구》6집, 1997.
 임진호〈한대의 사부창작과 경학〉:《중국학논총》16집, 2003.
 이강범〈동한말 경학 쇠퇴의 사회 정치적 배경〉:《중국어문학논집》37집, 2006.
 신주석〈서한시기의 문학에 나타난 경학〉:《중국문화연구》13집, 2008.

【中文提要】

經學占據了漢代學術思想的主導地位，儒生以獲取和傳播儒家的思想為己任，把它當作自己觀察思考問題的准則，並以儒家的倫理道德作為自己日常行為的規範。從漢代文風的流變可以看出其與經學(與漢代文風)的關係。從西漢後期開始一直到東漢，著述引經成為一種風氣。文人寫文章，也常常引經據典，視為典雅正宗，文章中出現‘經語’的頻率也相應增加。兩漢寓言的創作自然也帶有了這些新風尚。

‘依經立論’的寓言說理方式成為在兩漢時期突出的特點。兩漢寓言直接引用經典的頻率非常之高，被引用頻率最高的典籍是《詩經》。其代表著作是《韓詩外傳》和劉向的《說苑》、《新序》。《韓詩外傳》還有不少寓言用來表達政治倫理思想，每張故事先引用一些材料，或者講述一段寓言，然後以《詩經》的詩句作結。通過寓言故事闡發儒家經典中的道理。這一點到了劉向可以說發展到極點，劉向‘依經立論’的創作習慣，首先表現在他的創作總體精神上不違背儒家的基本思想，相應地，在選擇材料以達意的時候，也力求材料符合‘義理’即六經的基本精神。雖然劉向的作品采用了很多前人史料，但他賦予所用材料以新的生命，這種改換引文結語的作法，表明劉向選取材料最終還是為體現自己的思想服務的。

總之，‘依經立論’以加強文章論說的力度，‘論點-故事(舉例)-經語(議論)’的論說方式，提高故事的說服力，議論、抒情、描寫、說明等各種表達方式合在一起，形象生動，故事更完整，同時表現出複雜的邏輯思維，形成了新的論說模式。

【主題語】

兩漢寓言，經學，依經立論，韓詩外傳，劉向，寓言說理方式